

# 서울시, 무급휴직자 지원금 지급

### 150억 투입, 1인당 최대 150만원 코로나 피해 기업체 우선 지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15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증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중동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해당 업종에서의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 지원 인력이 2명씩 배치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인 6615명이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확대

### 유망 혁신 소공인 경쟁력 강화 내달 31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전문기술이나 우수아이템을 갖춘 유망 혁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내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끝으로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서 등 행정적 작성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컨설턴트의 인력풀을 구축, 소공인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응 수시로 접수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시, 마곡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개시

### 15개 기술 실증 사업 동시 진행

서울시는 마곡에서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실증하는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5개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마곡 내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제공해 기술 실증을 돕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당 최대 7000만원의 연구비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개 프로젝트의 기술 실증을 도왔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

한 음식배달 서비스(로보티즈)와 전동킥보드 전용 충전·주차 스테이션(대시컴퍼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솔루션(엑소시스템즈)이 그 예다.

시는 기존 10개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5개를 추가로 지원, 총 15개 기술 실증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신규 프로젝트 수행기관(서울 소재 스타트업 기업, 단체, 기관 및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내달 19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노들섬에서 한강야경 감상하세요”

### 서울시 내달 6일부터 유람선 운행 달 형상화 공간 ‘달빛노들’ 개방



달빛노들. /서울시

다음달부터 유람선을 타고 노들섬에 갈 수 있게 된다. 한 세기 넘게 휴양지로 사랑받았지만 강변북로 건설로 모래사장이 사라지면서 끊어졌던 노들섬으로의 뱃길이 다시 열리는 것.

서울시는 내달 6일부터 하루 1회 노들섬으로 가는 유람선을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람선은 이크루즈의 ‘뮤직크루즈선’으로, 매주 수~일요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제1선착장(영등포구 여의동로 280)에서 출발해 반포대교 주변 달빛 무지개 분수를 돌아 저녁 8시10분경 노들섬 선착장(용산구 양녕로 445)에 도착한다.

노들섬에서는 승선·하선 모두 가능하다. 노들섬에 내려 한강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유람선을 타고 여의도로

갈 수도 있다. 노들섬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 탑승과 예약 문의는 이크루즈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여온 ‘달빛노들’ 공간을 정식 개방한다. 노들섬 선착장은 거대한 인공 달 달빛노들과 함께 배들이 오가는 수상 관문이 된다. 달빛노들은 한국인의 정

서적 기원이자 유희의 대상인 달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름 12m의 원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밤이 되면 달빛노들에서 뿜어져 나온 빛들이 하나의 달무리를 이룬다. 달빛노들에는 30분 간격으로 ‘삭-초승달-상현달-하현달-그믐달’로 이어지는 조명이 연출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기술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활용해 초기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투자를 활성화 하는 등 민간주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경기 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률적 창업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

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의 일환이다.

온라인 창업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의 회원으로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투자가 성사되면, 경기도가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5개사씩 총 10개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 성사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 유치액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 고양·김포·파주 시민 80% “일산대교 무료화 찬성”

### 고양시 2000명 대상 ARS 여론조사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민 81.5%, 김포시민 89.4%, 파주시민 85.5%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했다.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유력

한 방안 중 하나인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70%(고양시민 71.3%, 김포시민 76.0%, 파주시민 77.9%)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대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어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1km당 660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최대 6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3일 이재준 고양

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은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고양, 김포, 파주 지역의 정치인들도 일제히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며 문제 삼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18~20일 만 18세 이상으로 고양시민 1,000명, 김포시민 500명, 파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화 RDD(유선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ARS방식으로 조사됐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2월 24일(수)

음력 : 1월 13일

수도권 날씨

**-4 ~ 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1 | 해질 / 18:21

연천 -8/9, 동두천 -7/9, 가평 -8/10, 파주 -8/8, 서울 -4/9, 양평 -5/9, 인천 -3/5, 수원 -3/8, 용인 -3/8, 평택 -6/10

백령도 -3/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